

새로운 추천도서 목록을 위하여

기존의 추천도서 지나치게 단순·도식적... 상황별 선정 기준 마련돼야

허병두

승문고등학교 국어교사·도서관 담당

얼마전 문화체육부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였다. 갈피마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시해온 도서목록들이 수월찮이 담겨 있어 쓸모 있는 자료집이 될 듯싶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스크랩한 자료들로 어지러웠던 책상 풍경을 잠시라도 거둘 수 있는 개인적인 기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록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평소 추천도서 목록들에 대해 가졌던 아쉬움을 새삼 어쩔 수 없다. 왜 그럴까. 이는 무엇보다도 추천도서 목록의 형식이 너무 단순하고 도식적이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특히, 작성자 임의로 대강 주제나 영역을 정해 제시하는 목록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책을 선정하는 일의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십진분류표(KDC)와 같은 과학적인 지식 분류체계와도 무관한 채로, 특별한 연구나 고려 없이 도서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허술함마저 앞으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도서선정의 허술함은 문제

추천도서 목록들의 또다른 문제점은 선정되는 책들이 일반적인 독자의 수준을 웃도는 데에도 있다. 다시 말해, 선정자들이 대개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들이다 보니 직접 책을 읽을 독자들의 수용 수준을 넘는 고난도의 책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추천도서라 하면 무조건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우리 독서계의 뿌리 깊은 관념도 작용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목적은 양서를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올바른 독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천도서 목록들은 양서라는 조건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책 중심으로만 작성되어 오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 보니, 해당 분야의 양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권위자들이 개입하여 판단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고, 선정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나머지 일반 독자들과는 거리가 먼 책들이 추천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작성 작업에 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어 수준에 걸맞

평소 추천도서 목록에 대해

가졌던 아쉬움은 그 형식의

단순함과 도식성에서 비롯한다.

또 선정되는 책들이

일반적인 독자 수준을

웃도는 데에도 문제는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도서라면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착한 내용과 형태로

다양하고 참신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 않은 책들이 장애물처럼 도사린 권장도서 목록들이 범람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존의 추천도서 목록들은 좋은 책들을 모아 놓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제시 형식이 단순하고 도식적이라는 한계, 그리고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싶은 데도 목록 수준이 너무 고난도의 양서만으로만 채워져 있는 장애 등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특정 출판사나 저자의 책들로 집중되지 않게 고려하고, 아무래도 개입되게 마련인 선정자의 개인적인 선호를 배제하려고 독서외적으로 애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래의 추천도서 목록이란 기껏 수많은 좋은 책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추천도서 목록은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냐에서 궁극적인 효용 가치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추천도서 목록들은 종래의 책 중심의 차원에만 머물던 시선을 독자의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양서를 추천해야 한다는 종래의 조건에 덧붙여 직접 책을 읽을 독자들의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고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공급자나 상품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경제상식과도 부분적으로 연관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도서 목록이라면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착한 내용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과 형태로 다양하고 참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싶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알맞는 적절한 책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특정 계절이나 월·요일·시간(시각)·감정 상태·사건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독서욕구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 '시험이 끝났을 때' '괜히 불안해질 때' '깊은 밤에 문득 무엇인가 읽고 싶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등등 청소년들의 사고와 정서, 생활을 최대한 고려하여 책을 읽고 싶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교하고 교육적인 '상황별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개개인의 독서 경험을 충분하게 모으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느 책을 읽었더니 좋았다는 개인적인 독서 경험을 조사하여, '비오는 날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더니 좋았다'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초조해질 때 성경책을 읽었더니 좋았다' 등과 같은 독자의 구체적인 독서 경험들이 자료로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집단 조성 체계적 연구를 후원해야

또한 책을 읽고 싶을 때는 물론 책을 읽어야만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재미있고 유용하게 펼쳐볼 수 있도록 새로운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안한 상황별 추천도서

목록의 경우, 기존의 지면을 벗어나 PC통신과 같은 뉴미디어의 화면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즉, 컴퓨터를 켜고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자신의 욕구나 희망, 상황에 따라 독자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갈래를 마련한다. 일단 어느 갈래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 다시 쉽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난이도를 스스로 정하여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정확히 고르도록 만든다. 이때 각 단계를 통과할 때 재미있는 게임이나 화면, 음향 등을 적절히 준비하면 교육적으로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덧붙여, 읽을 만한 구절 모음이나 독서 결과를 묻는 퀴즈 등을 준비하면 추천도서 목록 자체가 독서 동기의 부여는 물론 독서 결과의 점검까지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짧은 시간 동안에 어느 개인이 단독적으로 성공시키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대한출판문화협회나 한국도서관협회, 또는 교육부와 문체부 등이 서점이나 대기업 등과 서로 뜻을 모아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독서지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독서지도 담당 교사, 사서교사들을 두루 포괄하는 연구집단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후원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으로까지 정책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독자 중심의 새로운 추천도서 목록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독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